

전국 156개 시군농기센터 소장 신년 업무협의

농진청, 본청서 연구개발 추진 방향·핵심 농업정책 지원·현안 해결 방안 등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3일부터 24일까지 본청에서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변화와 혁신 의지를 다지고, 청의 연구개발(R&D) 추진 방향과 핵심 농업정책 지원, 현안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농산물 안정생산과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지를 모았다. 또한, 영농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된 타작물 재배 및 가루살 현장 기술지원, 농업인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3일부터 24일까지 본청에서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재해 사고 예방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작물 생육 단계별 상황과 병해충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도 재차 점검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 연구기관 부설 농업위성센터, 발농업 기계화 전시관, 과수 디지털 농업 실증포, 화훼온실 등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개발 기술의 현장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현장과 가장 밀접한 농업기술센터가 혁신과 협업의 주체로 앞장서 스마트농업 확산, 발농업 기계화 촉진, 농업의 디지털화 등 미래 농업을 견인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등 정책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23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챌린지 동참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 "모두의 한계를 넘어·새로운 조화"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23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GBCH, Go Beyond Create Harmony)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미자 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에 이어 챌린지에 동참한 이정환 본부장은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를 내건 메시지를 통해 전북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올림픽 유치의 꿈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시작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챌린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염원을 결집하고 참여를 확

산시키기 위해 전사적으로 전개하는 응원 챌린지이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는 도민전체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소중한 기회"라며 "올림픽 유치가 갖는 의미를 기억하며 전북농협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 지목해 주신 박미자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다음 참여자로 한국전력공사 연원섭 전북본부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준수 전북지역본부장을 지목하며 응원 챌린지를 이어갔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 설 귀성길 휴게소 신권 교환서비스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점포 '축버스'를 운영한다.

23일과 2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순창방향)에서 신권 교환 및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이동점포 '축버스'는 자동화기기(ATM), 은행창구 등이 탑재된 특수 차량으로 은행이 없는 원격지나 은행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장애인 고객 등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설 명절 귀향 전, 전기제품 전원은 꼭 뽑아주세요"

전기안전공사, 주방가전 사용할 땐 '젖은 손' 감전 주의도 당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설 명절 지켜야 할 전기안전 체크포인트 5가지를 23일 공개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2월9~12일) 동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모두 76건에 달한다. 2023년 설 연휴(1월 21~24일)에는 115건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설 연휴 가장 핵심적인 전기안전 체크포인트는 플러그 뽑기이다. 냉장고 등 일부 필수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가전제품은 전원 코드를 뽑아두는 것이 좋다.

외출 중 난방 제품의 전원 차단도 중요. 전기난로나 전기매트를 켜놓고 외출하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방에서는 젖은 손에 의한 감전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젖은 손으로 가전제품을 만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의 장시간 이용으로 인한 과열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봐야 한다.

가습기는 콘센트와 거리를 뒤편에 두고, 가습기가 물기를 분무할 때 주변에 콘센트나 전기제품이 있다면 누전이나 합선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누전차단기에 붙어 있는 빨간색(초록색) 시험 버튼을 눌러 작동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스위치가 '탁'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누전차단기가 정상 작동한다는 뜻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전국 68곳의 전통시장(8586개 점포)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명절은 연휴가 긴 만큼, 외출시 안전 수칙은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소양농협, 설맞이 다문화가정 사랑의 꾸러미 나눔행사

완주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은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아 다문화가정인 결혼이민여성 10명과 고향의 그리움 등 어려움을 함께 하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쌀과 식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보냈다.

유해광 조합장은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인 다문화가정 및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나눔활동을 통해 농업의 상생을 실현하고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명절 맞이 기부행사 진행

400만원 상당 생필품 전달 등 이웃돕기 앞장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경영의 정신을 실천했다.

경진원은 23일 전주시 양원 아가페정안원, 호성보육원, 은혜의동산 총 네 곳을 찾아 약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아동 의류를 전달했다. 더불어

3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추가로 전달하며 지역상생의 가치를 실현했다.

지역 내 우수기업과의 공동기부는 경진원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해온 사회공헌활동이다. 경진원은 앞으로도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지역 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윤여봉 원장은 "이번 설 명절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며, "경진원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국전력 군산지사(지사장 황수동)는 지난 22일 설 명절을 맞아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온기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돕기 앞장서

한전 군산,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찾아 생필품 전달

한국전력 군산지사(지사장 황수동)는 지난 22일 설 명절을 맞아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온기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전력 군산지사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월급에서 십시일반 모은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여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하였으며 지원 물품은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는 취약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황수동 지사장은 "올해 새해를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